

【모의고사 제1회】 hohosam.com

01.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 사전적인 의미: 외롭고 쓸쓸하다.

용례1. 그토록 시끌벅적하던 집이 제사가 끝나자 절간처럼 ()해졌다.

용례2. 이국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 ① 단출 ② 고즈넉
③ 한적 ④ 고적

02. 다음 단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없다: 착실하지 않아 미답지 못하다
- ② 심심파적: 심심함을 잊기 위한 것
- ③ 잔망스럽다: 온갖 고생에 찌들다
- ④ 번연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03. 다음 문장에서 표준어의 표기가 바른 것은?

해질녘만 되면 꽃내기 총각의 마음 한 켠에 으레 자리 잡는 어느 처자가 있었다.

- [illegible]

04. 다음 중 복수 표준어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부엌, 정지 ② 어린벌레, 애벌레
③ 가랑비, 이슬비 ④ 우레, 천둥

05. 다음 단어의 한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쓴 것은?

개회사, 요리사, 기숙사

- ① 開會詞，料理士，寄宿社 ② 開會詞，料理師，寄宿舍
③ 開會辭，料理士，寄宿舍 ④ 開會辭，料理師，寄宿舍

06. 다음 중 우리 국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모음은 모두 10개이다.
- ② 이중모음 ‘-이’의 경우 둘째 음절에서는 ‘ㅣ’로 발음할 수도 있다.
- ③ 장단음의 구분은 음절 단위의 발음에서만 필요할 뿐 일상생활에서는 불필요하다.
- ④ 표준어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음은 모두 19개인데 여기에는 기본자음에 된소리로 표기되는 자음까지 더한 것이다.

07. 다음에서 보이고 있는 언어 표현상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문장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아무런 유언의 말 한 마디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 ① 축구를 좋아하는 동생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모였다.
② 할머니 덕의 개는 매우 영리해서 도둑을 정말 잘 지킨다.

- ③ 현이는 국가대표 사격선수 치고 명중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다.
- ④ 한참의 고민 끝에 마침내 머릿속에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났다.

0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구조’라는 개념은 언어학에서부터 인류학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언어학 분야에서 이해하는 구조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소리 자체는 의미를 갖지 않지만, 대립적인 음의 조합으로 언어의 의미가 생성된다. 즉 의미는 하나의 요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음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가령 자연색의 스펙트럼은 무지개의 색처럼 연속적으로 무수히 존재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비연속성,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흑과 백, 남과 여, 하늘과 땅, 음과 양이라는 이항대립(二項對立)적인 비연속성을 통해 의미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여기서 어떤 색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녹색을 남성으로 간주하는 조합에서라면 그의 보색인 빨강은 여성을 의미하게 되고, 검정이 불길한 의미라면 흰색은 좋은 징조가 된다.

- ① 의미는 고정 불변의 것이다.
- ② 의미는 사회적 산물이다.
- ③ 의미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 ④ 의미는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09. 다음 글에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학에서는 한 쌍의 부부 중 여성 배우자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에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예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여자 쪽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수도룩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요즘 연상의 여자와 연하의 남자가 결혼하는 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그리 이상할 것은 없다.

사실 우리가 결혼의 정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하고 사회적 지위나 학력도 높아야 한다는 것 등이 결혼의 일반적 경향으로 굳어진 것은, 그리 오랜 일도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풍습도 아니다. 이런 정형은 어떤 사회 상황에 의해 시작되었다가 그 상황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막을 내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① 결혼의 정형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 ② 결혼의 정형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 ③ 연상의 여자와 연하의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 ④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사회 결혼의 정형을 찾아야 한다.

10.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수학의 정석>을 출판하는 모 출판사 측은 이 책이 수험생들로부터 꾸준히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시류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을 따르면서,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기출 문제를 엄선해서 추가하고 연습문제 등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_____의 편집방향이 뒷받침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 | |
|--------------|--------------|
| ① 방약무인(傍若無人) | ② 수불석권(手不釋卷) |
| ③ 청출어람(靑出於藍) | ④ 온고지신(溫故知新) |

1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런 변화들은 우리 생활이 모든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18세기 산업 혁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뀌리라는 생각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변화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① 비교(比較)할 ② 비견(比肩)할
③ 대응(對應)할 ④ 대치(對峙)할

12.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리가 저러서 더 이상 서 있기 힘들다.
김장에 쓸 배추를 몇 포기 더 절이도록 해요.
- ② 이번 진도가 너무 느려서 걱정입니다.
판매량을 두 배 이상 늘릴 방법이 없을까요?
- ③ 창고에서 더 이상 쓰지 않을 물건들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모자를 벗은 순간 그의 대머리가 들어났다.
- ④ 너 약속 반드시 지켜.
머리를 반듯이 들어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지.

13. 다음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① 촉진(促進)하고 국어의 발전과 ② 보전(補填)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③ 증진(增進)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④ 발전(發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촉진(促進) ② 보전(補填)
③ 증진(增進) ④ 발전(發展)

14. 다음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름 우희 땃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망뎡
어름 우희 땃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망뎡
정(情) 둔 오늬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 ① 임에 대한 사람의 강렬한 소망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② 이루어질 수 없는 임과의 사랑에 대해 원망하고 있다.
- ③ 임과 함께 보내는 짧은 밤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 ④ 일정한 어구를 반복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15. 다음 글에서 작가가 한스럽게 여기는 원인을 한자성어로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천여 년의 바람과 비에 귀중한 옛 솜씨가 더러 이지러지고 무너진 것은 아깝기 한량없
지마는, 15년 전에 크게 수리한 탕으로 도리어 옛것과 이제 것을 분간하기 어렵게 된 것

- 현진건, '불국사 기행'

- [illegible]

16. 다음 중 1930년대의 문학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종화와 홍명희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소설이 창작되었다.
- ② 카프문학에 반대하는 순수문학과와 활동이 두드러졌다.
- ③ 정지용 등의 모더니즘 계열 작가가 활동하였다.
- ④ 서구문학의 발달에 대항하기 위해 시조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17. 다음의 밑줄 친 ㉠과 ㉡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는?

(가) 元淳文(원순문) 仁老詩(인노시) 公老四六(공노스륙)
李正言(니정언) 陳翰林(딘한림) 雙韻走筆(쌍운주필)
冲基對策(통기퇴척) 光鈞經義(광균경의) 良鏡詩賦(량경시부)
위 試場(시당) 人 景(경) 이 었더헛니잇고.
葉(엽) 琴學士(금학스)의 玉筍門生(옥순문싱) 琴學士(금학스)의 玉筍門生(옥순문싱)
㉠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한림 제유(翰林諸儒), ‘한림별곡(翰林別曲)’

(나) 술이 낙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내며 타이며 헐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래로 醉興(취흥)을 배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람이라 브트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을프락 파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天地(천지)도 넘고넘고 日月(일월)도 한가하다. 義皇(희황) 모랄러니 이적이야 괴로고야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 江山風月(강산 풍월) 거날리고 내 百年(백 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 ① 인생과 세월의 덧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 ②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갈등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삶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인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근 ㅁㄹㄴ 혼 고비 ㅁ술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름 江村(강촌)애 일마다 幽深(유심)흐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닌 집우헛 저비오,
 서르 親(친)흐며 서르 갓잡느닌 물 가온딛 곶머기로다.
 늘근 겨지븐 죠히를 그려 장괴파눌 땡글어눌,
 저문 아드룬 바느를 두드려 고기 낫글 낙술 땡ㄴ느다.

한 病(병)에 얻고져 호는 바는 오직 藥物(약물)이니,
저구맛 모미 이 밝기 다시 프스글 求(구)호리오.

- 두보, 한시 '강촌(江村)'

- | | |
|---------------|-------------|
| ① 근심과 걱정이 넘치다 | ② 번거롭고 귀찮다 |
| ③ 유별나고 특이하다 | ④ 한가롭고 평화롭다 |

19. 다음 작품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가) 겨울 나무와 / 바람

머리치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뜨리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나) 이제 바라보노라, /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낮은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大地)의 고백(告白).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寂寞)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① 고난과 시련을 거쳐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고 있다.
- ② 생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다.
- ③ 절대자와의 교감을 통해 삶의 허무감을 극복하고 있다.
- ④ 인생의 덧없음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

2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례식엔 나 혼자 돌아와 참석했다. 의사 그린 씨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좀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가 처방을 써줘서 아버지가 약국에 가 약을 지으셨는데, 여지껏 그 약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 니트로글리셀린 약만 있었다라면 아버지는 도움을 청할 때까지 버틸 수 있어 안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 나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마당가 바로 그 자리에 서있었다. 슬픔이 북받쳐 올라 나는 아버지가 숨을 거두신 그 땅을 손바닥으로 훑어보았다. 내 손가락에 딱딱한 게 닿았다. 반쯤 묻힌 블록이었다. 나는 무심코 그 블록을 들어 팽개쳤다. 그랬더니 그 아래 부드러운 땅속에 콕 박혀 있는 약병이 보였다. 뚜껑이 꼭 잠긴 채 알약이 가득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이었다.

약병을 집어 드는 내 눈엔 아버지가 뚜껑을 열려고 애를 쓰다 못해 필사적으로 블록으로 약병을 깨려고 했을 장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이 죽음과의 싸움에선 그토록 맥없이 패배한 까닭을 알고 나니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다.

‘어린이 손이 안 닿게 되어 있는 안전 뚜껑. 눌러서 돌리셔야 열립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약사는 바로 그날부터 새로운 안전 약병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리석은 짓인 줄 알면서도 시내로 나가 제일 좋은, 가죽 표지의 사전과 순금 펜 세트를 샀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복을 빌면서 따뜻하고 충실했던 손, 그러나 글자를 못 썼던 그 손에 그것들을 쥐어 드렸다.

- ① 이 글은 수필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 설득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 ② 아버지에 얽힌 일화를 회고하고 있다.
- ③ 감정을 적절히 절제하여 감상에 빠지지 않고 있다.
- ④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추모의 정이 잘 드러나 있다.

=====

【모의고사 제1회 답지】

01. 답 4

고적(孤寂)하다: 외롭고 쓸쓸하다.

<용례> 고적한 분위기 / 아무도 없는 집 안은 고적하게 느껴진다. / 우선 요새만 하더라도 긴긴 밤에 혼자 주무시기 고적하지 않습니까? /

【오답 피하기】 ① 단출하다: 식구나 구성원 수가 많지 않아 홀가분하다. 혹은 일이나 차림

이 간편하다. <용례> 살림이 단출하다. 차림이 단출하다. ② 고즈넉하다: (분위기가) 고요하고 아늑하다. 혹은 말없이 다소곳하거나 잠잠하다.<용례> 침의 고즈넉한 침묵을 깨뜨리고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③ 한적하다: 한가하고 고요하다. <용례> 한적한 시골

02. 답 3

③ 잔망스럽다: 보기에 몹시 약하고 가냘픈 데가 있다. 혹은 보기에 태도가 행동이 자질구레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

<용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글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 황순원, '소나기'

03. 답 2

'꽃'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처음 나온'이나 '덜 익은', '미숙한'이란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용례> 꽃내기, 꽃고추, 꽃사과, 꽃사랑, 꽃잠

[오답 피하기]

- ① 해질녘 ⇨ 해질녘 (부엌, 동녘 등과 같이 받침은 'ㄱ'으로 적는다.)
- ③ 한 켜 ⇨ 한 편 ('켄'은 '편'의 방언이다.)
- ④ 으레 ⇨ 으레

04. 답 4

'우레'와 '천둥'은 같은 뜻의 복수표준어로 규정된 단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정지'는 부엌의 방언이다. ② '애벌레'만 표준어이다.
- ③ '가랑비'와 '이슬비'는 모두 가늘게 내리는 비를 뜻하지만, '가랑비'가 '이슬비'보다 좀 더 굵은 비를 의미한다. (는개 < 이슬비 < 가랑비)

05. 답 4

개회사(開會辭, 열 개, 모임 회, 말할 사): 회의 등을 시작할 때 인사로 하는 말
요리사(料理師, 헤아릴 요(료), 다스릴 리, 스승 사)
기숙사(寄宿舍, 기이할 기, 머무를 숙, 집 사)

06. 답 3

우리 모음의 소리의 길이는 현대 국어에서 음운의 요소를 이루는 대표적인 특성의 하나인데, 이 차이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

ㄱ.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이고, 전체모음의 개수는 21개이다.

㉠ 단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이중모음: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ㅛ]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민주주의의 의의 ⇨ 원칙: [민주주의의 의의]

⇨ 예외: [민주주의에 의의]/[민주주의에 의이]/[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이]/[민주주의에 의의]/[민주주의에 의이]

ㄷ. 현대국어에서 자음은 총 19개이다.

조음방법 \ 조음위치	두 입술	윗잇몸, 혀끝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ㅍ		ㄱ
	된소리	ㅃ	ㅑ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07. 답 4

유언(遺言)의 ‘유(遺)’가 ‘남기다, 전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이다. 그래서 단어가 중복되어 쓰인 문장이 되었다. ④번 또한 ‘뇌리(腦裏)’의 ‘뇌(腦)’가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단어가 중복되어 쓰인 문장이 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동생’인지 ‘동생의 친구’인지 모호하다.
- ②: ‘개가 지키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집을 정말 잘 지킨다.’로 고쳐야 한다.
- ③: 보조사인 ‘-치고’의 경우 뒤에 호응되는 말은 부정문이어야 한다.

08. 답 4

밑줄 친 부분은 이항대립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이다. 즉 어떤 색이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이항대립을 통해서 의미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항대립이라는 하나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09. 답 1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글의 뒷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혼의 정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 답 4

본문의 둘째 줄에 ‘시류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을 따르면서 ~ 기출 문제를 엄선해서 추가하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곧,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의미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답이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방약무인(傍若無人, 곁 방, 만일 약, 없을 무, 사람 인):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 ② 수불석권(手不釋卷, 손 수, 아니 불, 풀 석, 책 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매일 글을 읽음.
- ③ 청출어람(靑出於藍, 푸를 청, 날 출, 어조사 어, 쪽빛 람):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그 쪽빛보다 더 푸름을 이르는 말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더 나음을 이르는 말.

11. 답 2

여기서 ‘어깨를 나란히 하다’는 ‘서로 비슷한 위치나 지위를 갖다’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에 어울리는 단어로 ‘비견(比肩)하다’가 가장 잘 어울린다.

비견(比肩: 견줄 비, 어깨 견):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낮고 못할 것 없이 정도가 비슷함을 이르는 말.

[오답 피하기]

- ① 비교(比較: 견줄 비, 견줄 교):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
- ③ 대응(對應: 대할 대, 응할 응):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
- ④ 대치(對峙: 대할 대, 언덕 치): 서로 맞서서 버티는 상태.

12. 답 3

드러나다: 가려져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 혹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 <용례> 구름이 걷히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들어내다: 물건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다.

13. 답 2

보전(補填) ⇨ 보전(保全) / 보전(保全: 보호할 보, 온전 전):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보전(補填: 기울 보, 메울 전):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움.

[오답 피하기] ① 촉진(促進: 재촉할 촉, 나아갈 진) ③ 증진(增進: 더할 증, 나아갈 진)

- ④ 발전(發展: 펼 발, 늘일 전)

14. 답 2

고려가요 ‘만전춘별사’는 얼음 위에 맺있자리를 보아 얼어 죽더라도 사랑은 얼음이나 죽음보다도 강렬함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오늘밤은 더디 새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과의 짧은 밤을 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15. 답 4

필자는 옛것을 수리하여 현대화한 그 모습이 도리어 옛것에 스며있는 전통까지 사라져 버린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는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나쁘게 됨을 이르는 말인 ‘교왕과직(矯枉過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외화내빈(外華內貧: 바깥 외, 빛날 화, 안 내, 가난할 빈): 겉치레는 화려(華麗)하나 실속이 없음
- ② 남가일몽(南柯一夢: 남녘 남, 나뭇가지 가, 하나 일, 꿈 몽): 한때의 헛된 부귀영화.
- ③ 허장성세(虛張聲勢: 빌 허, 베풀 장, 소리 성, 기세 세):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를 부림.

16. 답 4

일제강점기에 국민문학과가 제창한 현대시조 창작운동. 최남선(崔南善)·이광수(李光洙)가 중심인물이 되어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F) 등의 프로문학 세력에 대항한 것이 국민문학론이고, 그 핵심내용이 시조부흥운동이다. 1926년에 시작되어 1929년까지 계속되었다.

17. 답 3

㉠에서 화자는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 속에 자신을 포함시킴으로써, ㉡은 화자 자신을 이태백에 비유함으로써 삶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18. 답 4

‘유심(幽深)’의 의미는 ‘깊숙하고 그윽함’이다.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 본다면, 이 깊숙하고 그윽한 분위기는 결국 한가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보, ‘강촌(江村)’1. 원래의 한시부분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老妻畫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自去自來堂上燕	자거자래당상연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徵軀此外更何求	징구차외경하구
2. 요점 정리 : 성격 : 한정적, 자조적, 세태비판적, 풍자적 구성 : 선경후정의 구성 주제 : 긴 여름 강촌의 삶,知足(知足)의 삶(안분지족), 인간 생활의 세태 풍자			

19. 답 1

두 작품 모두 시적 자아의 시련을 노래하고 있는데, (가)의 경우 화자의 고독 속에서 종교적인 인식을 통해 삶에 대한 각성을 하고 있으며, (나)의 경우 방황과 번뇌 속에서 눈 덮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통한 내면의 평화를 얻고 있다. 즉 두 시는 각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번과 같이 삶에 대한 집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번의 경우는 (가) 작품에만 적용될 수 있고, ④번의 경우는 반대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다.

20. 답 1

이 글은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독자를 설득하는 의도가 없다.

[오답 피하기]

②: 아버지에 얽힌 몇 가지 일화를 시간적 순서대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③,④: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으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애뜻함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글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자의 감정을 적절히 절제해서 나타내고 있다.

【모의고사 제2회】 hohosam.com

01. 다음 중 설명하는 단위 명사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 생선 두 마리를 한 단위로 세는 말
㉡ 북어 스무 마리를 한 단위로 세는 말
㉢ 굴비를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 ① 손 - 꽤 - 두름 ② 씹 - 꽤 - 짭
③ 톳 - 두름 - 꽤 ④ 두름 - 꽤 - चु

0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으로 옳은 것은?

- ① 구름이 있는 걸 보니, 오늘 날씨는 그렇게 맑지 않겠구먼. ⇨ [말찌]
- ② 시간 관계상 개별적인 발언은 짧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짧께]
- ③ 난 왜 자꾸 ‘얕다’와 ‘가늘다’를 헷갈리는지 몰라. ⇨ [얕따]
- ④ 넓디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 [넙 : 떠널 : 븐]

03. 다음 밑줄 친 시간어의 풀이가 바른 것은?

- ① 해거름이 되니 다시 날씨가 추워지고 있군. ⇨ 해가 거의 저물 무렵
- ② 이따 들마 될 때 같게. ⇨ 가게가 잠시 쉴 무렵
- ③ 우리 이번에 해포 만에 만나는 거니? ⇨ 일 년 반의 시간
- ④ 교정직 시험은 해거리로 치르잖아. ⇨ 해마다

04. 다음 중 연대가 가장 늦은 작품은?

- ① 醉(취)하야 누엇다가 여홀아리 느리거다 /배 먹여라, 비 먹여라/落紅(낙홍)이 흘러오니 桃源(도원)이 갓갑도다/至匆遑(지국충) 至匆遑(지국충) 於思臥(어사와)/아회야 人世紅塵(인세홍진)이 언미나 가렸느니
- ②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나마는 / 시절이 하 수상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 ③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④ 대초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며 뵈 그르헤 게논 어이 느리논고./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05.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작품으로 맞는 것은?

이것은 신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가배(嘉俳, 궁중에서 귀족의 부인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하던 길쌈 내기)를 하여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부르던 노래였다고 한다.

- ① 치슬령곡 ② 선운산가
③ 망부석가 ④ 회소곡

06. 다음의 밑줄 친 ㉠과 ㉡의 차이로 옳은 것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 자기들끼리 깰깰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 깰깰대면서 /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 앉는다.
㉡ 주저앉는다.
- 황지우,

- ① ㉠은 수동적인 모습이지만, ㉡은 능동적인 모습이다.
 ② ㉠은 집단의 행위이지만, ㉡은 시적 화자의 행위이다.
 ③ ㉠은 객관적인 사실의 표현이지만, ㉡은 주관적인 인식의 표출이다.
 ④ ㉠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만, ㉡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07.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쓴 것은?

당신이 **진정** 떠나시겠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진정**하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① 眞正，鎮靜，陳情 ② 眞淨，鎮靜，陳情
③ 鎮靜，眞正，陳情 ④ 陳情，眞正，鎮靜

08.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은?

- ① 몸집이 크고 남자만큼 힘이 센 여자를 가리켜 ‘왜장녀’라고 한다.
- ② 그 사람만큼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 ③ 이 시험에서 애쓰만큼 성적이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다.
- ④ 장동건만큼 잘 생긴 미남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09. 다음 중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는 정말 별 핑계를 다 대더라.
- ②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어슴푸레 나타났다.
- ③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 ④ 며칠 아팠던 그 사람은 해쓷한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1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위로부터의 조직화에 의한 여론 형성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여

론 과정이 고전적 이론의 예정된 통합적 기능보다도 분열과 대립의 기능을 보다 많이 수행하는 위험성이다. 즉, 그곳에서는 예리하게 대립하는 주도적 의견을 중심으로 하여 그 동조자가 결집하는 결과 상호 간의 대화와 매개가 더 한층 곤란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① 내포: 內包

② 분열: 分列

③ 곤란: 困難

④ 경향: 傾向

11. 다음 글에서 등장인물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였다. 6.25사변으로 대학의 강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놓친 나는 서울에서 무진까지의 천여 리 길을 발가락이 몇 번이고 불어터지도록 걸어서 내려왔고, 어머니에 의해서 골방에 처박혀졌고 의용군의 징발도 그 후의 국군의 징병도 모두 기피해 버리고 있었었다. 내가 졸업한 무진의 중학교의 상급반 학생들이 무명지(無名指)에 붕대를 감고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을 부르며 읊 광장에 서 있는 트럭들로 행진해가서 그 트럭들에 올라타고 일선으로 떠날 때도 나는 골방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들의 행진이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대학이 강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을 때도 나는 무진의 골방 속에 숨어 있었다. 모두가 나의 홀어머니 때문이었다. 모두가 전쟁터로 물러갈 때 나는 내 어머니에게 물려서 골방 속에 숨어서 수음을 하고 있었다. 이웃집 젊은이의 전사 통지가 오면 어머니는 내가 무사한 것을 기뻐했고, 이따금 일선의 친구에게서 군사우편이 오기라도 하면 나 몰래 그것을 찢어 버리곤 하였었다. 내가 골방보다는 전선을 택하고 싶어해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쓴 나의 일기장들은 그 후에 태워 버려서 지금은 없지만, 모두가 스스로를 모멸하고 오욕(汚辱)을 웃으며 견디는 내용들이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지금 미친다면 대강 다음과 같은 원인들 때문일 테니 그 점에 유의하셔서 저를 치료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기를 쓰던 때를, 이른 아침 역구내에서 본 미친 여자가 내 앞으로 끌어당겨주었던 것이다.

- 김승옥, ‘무진기행’

① ‘나’는 어머니를 늘 경멸하며 증오했다.

② ‘나’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다.

③ 대학의 강의가 재개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골방에 숨어 지냈다.

④ ‘나’는 전쟁에 나가길 원했으나, 그러질 못했다.

12. 다음 글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벌을 줄 때 옛날의 서당이나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무릎을 꿇려 앉혀 놓거나 한다. 육체적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의 벌은 많은 사람 앞에 ‘우세’가 되는 정신적 고통인 ‘심벌(心罰)’이 중심이다. 서양의 학교에서는 육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의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심벌의 전통은 없다. 한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여 창피를 주는 ‘우세’가 벌의 중심이 되어 있음은 바로 우세라는 심통(心痛)이 체통(體痛)보다 더 아프다는 한국인의 집단 의식이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① 정신적인 모욕을 주는 ‘우세’는 신체적인 처벌보다 더 아프다.

② ‘우세 문화’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국 고유의 체벌 문화이다.

- ③ 한국인은 신체적 고통보다 심적 고통이 더 크다는 집단의를 가지고 있다.
- ④ 잘못을 범했을 때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잘못을 자제시킬 수 있다.

13. 다음 대화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상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성호: 주연아,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주연: 뭔데 그래?
 성호: 지난번에 네가 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번 논문 작성 때 좀 써 보려고 하거든. 그거 어떻게 쓰는지 좀 가르켜 줄래?
 주연: 어, 그래? 그런데 왜 아무 것도 안 가져왔어? 프로그램 CD들을 가져와야 어떤 건지 가르킬 거 아냐.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켜 달라는 건지 모르겠네.
 성호: 아니, 그냥 빨리 가르켜 달라니까. 주연아, 나 지금 시간 빠듯해서 빨리 시작해야 한단 말이야.
 주연: 네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야 가르켜 주지. 지금 여기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키냐고…….
 성호: 꼭 그 CD들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주연아, 그냥 말로 설명하면 안 되겠니? 그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주연아, 안 되겠니?
 주연: 아, 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그럼 똑바로 말을 하지.

- ① 오늘 국어 선생님께 그 책을 준 사람이 사모님 맞지?
- ② 어제 저녁쯤 제주도에도착할 것 같은데.
- ③ 그럼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전체 회의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④ 어떡하면 좋아? 나 어제 돈 잃어 버렸어.

14. 다음 중 올바르게 표현된 문장을 모두 고르면?

ㄱ. 최종 면접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절부절했다.
 ㄴ. 요즘엔 남자가 화장을 해도 주책없다는 말은 듣지 않는다.
 ㄷ. 나는 그런 얘기 생판 처음 듣는데.
 ㄹ. 평소에 꾸미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우리 누나도 그렇게 입으니 영판 딴 사람 같다.
 ㄴ. 경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졸업 기념으로 고급 정장을 한 벌 사 주셨어.
 ㅂ.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알맞지 않는다.
 ㅅ. 국제 심판위원장은 한국이 경기에서 진 이유는 스위스 선수들의 반칙보다 한국 선수들의 미흡한 능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ㅇ. 우리 정부는 '요코 이야기'에 관련된 문제를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ㅈ. 억울하게 오해받는 경우에 '엄한 사람 잡겠다'는 말을 한다.
 ㅊ. 결혼식 때 보니까 은영이 남편도 왔던데.
 ㅋ. 내 밑으로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 데 내가 그런데까지 가야 하는 거냐고?

- ① ㄱ, ㄷ, ㄹ, ㅂ, ㅈ, ㅊ
- ② ㄴ, ㄷ, ㄴ, ㅅ, ㅇ, ㅊ
- ③ ㄱ, ㄹ, ㄴ, ㅂ, ㅇ, ㅋ
- ④ ㄴ, ㄹ, ㄴ, ㅅ, ㅇ, ㅊ

15. 다음 중에서 국어 어휘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민족적 평등사상의 결과 높임어가 발달했다.

- ② 감각어가 발달하여 정서적 유사성에 의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③ 여러 차례에 걸친 국어 순화운동의 결과 고유어는 한자어에 비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④ 단어에 성의 구별이 존재하여 친족 관계 언어가 독창적으로 발달했다.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날 염주(念珠)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 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道場) 성진(性眞)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受責)하여 풍도(都)로 가고, 인세(人世)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공명신퇴(功名身退)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必然) 사부가 나의 염려(念慮)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富貴)와 남녀 정욕(情欲)이 다 허사(虛事)인 줄 알게 함이로다.

- ① 무대는 중국 당나라이며, 유·불·선 사상이 담겨 있다.
- ② 조선 양반 소설의 대표작으로 염정 소설이다.
- ③ 작가가 유배 시에 모친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 ④ 이 글의 주제는 권선징악이다.

1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서로 대조적인 모습이 형상화된 것은?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웅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들기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 ① 아아, 어이 하리. 내 홀로 / 다만 내 홀로 지닐 즐거운
 무상한 열반을 / 나는 꿈꾸었노라.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맘의 맑은 거울을 흐리노라.
- ②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속 깊이 거꾸러져 /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③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 ④ 마음이 저지러운 날은 / 수를 놓는다.//
 금실 은실 청홍실 / 따라서 가면 / 가슴 속 아우성은 절로 갈았고//
 처음 보는 수풀 / 정갈한 자갈들의 / 강변에 이른다.

18.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야 草廬三間(초려 삼간) 지어 너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淸風(청풍) 혼 간 맛져 두고,
 江山(강산)은 드릴 디 업스니 둘너 두고 보리라. - 면앙정 송순의 시조

- ① 화자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② 시적 대상에 시적 화자의 감정을 투사하여 나타내고 있다.
 ③ 자연물에 대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시적 화자는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청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에 나타난 ‘새’의 의미를 해석하고자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우화적(우화적) 성격이 짙은 소설이다. 우화란 어떤 일을 경계할 목적으로 비유적, 상징적 소재나 표현을 사용하여 만든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독자는 작품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암시, 경계하는 바에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한다. 새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표상하는 존재이다. 그러면 이글에서는 어떠한가?

- ① 선주 : ‘새’가 돈으로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야. 그렇게 되면 그 자유는 제한적이고 불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
 ② 영기 : 이 글에서 ‘새’는 마음껏 날아갈 수 없게 된 존재로 그려져 있어. 그런 점에서 ‘새’는 구속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③ 재승 : ‘새’를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짧은이’는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어.
 ④ 대현 : ‘새’는 숲에 있기도 하고 비밀 집합사에 갇혀 있기도 해. 이런 점에서 ‘새’는 자유와 구속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어.

20. 동물을 소재로 짧은 글을 써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은?

<보기>
 가. 유추를 적절히 사용할 것
 나. 교훈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할 것
 다. 의문의 형식을 통해 내용을 강조할 것

- ①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닭도 자기 새끼를 아끼고 사랑으로 돌본다고 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식의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성애가 강한 닭에게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② 돼지는 미련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호랑이도 밀어붙일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

다. 사람 중에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비하만을 일삼는 사람이 이다. 그러나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③ 소쩍새는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데, 사실 소쩍새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사라지는 이기적인 새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쩍새를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하는 것일까?

④ 백수의 제왕 사자는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실패한다고 해도 한 번을 성공하기 위해 사냥을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해서야 되겠는가?

모의고사 제2회 해설과 정답

01. 답 1

‘손’은 원래 고등어나 조기 등의 경우 큰 것과 작은 것 각각 한 마리씩 두 마리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배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포기를 ‘손’이라 부르는데, 미나리와 파의 경우는 한 줌의 분량을 말한다) ‘쾌’는 북어 스무 마리를 한 단위로 묶어 세는 말이며, ‘두름’은 조기나 굴비 등의 생선을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묶은 것을 말한다.

[오답 피하기]

- ② ‘쌈’은 바늘 스물네 개를 묶어 이르는 말, ‘짹’은 한 쌍을 이르는 말.
- ③ ‘툇’은 김 100장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축’은 오징어 스무 마리를 이르는 말이다.

02. 답 2

표준발음법 제10항의 규정을 보면, 겹받침 ‘ㄱ, ㄴ, ㄹ,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 ㄴ, ㄹ, ㄷ]으로 발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짧게’를 [잘게]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오답 피하기]

표준발음법 제11항의 규정에 따르면, ‘ㄹ, ㄹ,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하되,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①번의 경우 [막찌]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③번과 ④번은 표준발음법 제10항을 적용하여 [알따], [널 : 띠널 : 븐]으로 발음해야 한다.

03. 답 1

‘해거름’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를 의미하는 말로 답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들마: 가게가 문을 닫을 무렵
- ③ 해포: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
- ④ 해거리: 한 해를 거르는 간격. 곧 격년을 일컫는 말

04. 답 1

- ① **어부사시사: 윤선도(尹善道)가 지은 40수의 시조. 1651년(효종 2) 보길도(浦吉島)를 배경으로 지었다.** 지은이와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고려 말의 ‘어부가(漁父歌)’를 이현보(李賢輔)에 이어 읊은 한국 어부사계통 시가의 총합편이라 할 만하다. 춘하추동 사시(四時)의 각 1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작품의 장(章) 사이에는 여음(餘音)이 들어가 있다. 여음은 출범에서 귀선까지, 즉 배를 띄우고 닻을 올리고 돛을 달고 노를 젓고 노래 부르다가, 돛을 내리고 배를 세우고 배를 매어놓고 닻을 내리고 배를 물으로 붙이는 과정을 정연하게 보여주면서,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물결이 뱃전에 철썩이는 소리를 묘사한 후렴은 도도한 흥취를 돋우는 구실을 한다. 지은이는 기왕의 어부사들의 세계인 강호(江湖)에 파묻힌 은자(隱者)의 세계에서 나아가, 자연에 내포된 관념과 의미를 탐구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즉,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고 있다. <고산유고(孤山遺稿)>에 실려 전한다.
- ②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쓴 김상헌의 시조이다. 인조 때.
- ③ 고려유신 길재의 회고가다. 조선 초기 작품이다.
- ④ **조선 세종 때 황희의 시조로, 풍요로운 가을 농촌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05. 답 4

회소곡: 신라 유리왕 때의 노래. 왕이 육부(六部)를 둘로 나누어 왕녀(王女)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명하여, 음력 7월 16일부터 날마다 육부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시작하고 밤 10시 무렵에 파하게 정하였다. 음력 8월 15일에 성적을 심사하여 진 편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함께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벌였는데 이를 가배(嘉俳; 오늘날 추석 한가위)라 하였다. 이때 진 편에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회소(會蘇) 회소(會蘇)’라 하였다고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치술령곡:** 눌지왕 때 박제상(朴堤上)이 볼모로 잡혀 있는 왕의 아우 미사흔(末斯欣)을 구하려 왜국에 갔다가 미사흔은 구해 보냈으나 자신은 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박제상 부인이 세 딸과 치술령(울산 경계에 있는 재)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 부인도 죽어 치술령의 신모(神母, 또는 망부석)가 되었다고 한다.
- ② **선운산가:** “백제 때에 장사(長沙) 사람이 정역(征役: 일정한 나이 이상에 이른 남녀가 서울에 가서 일에 복역하는 것)에 나갔는데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의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 나머지, 선운산에 올라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다(長沙人 征役 過期不至 登禪雲山 望而歌之).”고 한다.
- ③ **망부석가:** ‘치술령곡’의 또 다른 이름이다.

06. 답 3

㉠은 애국가가 끝나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은 시적 화자가 화면을 보며 잠겨 있던 상념에서 깨어나서 억압된 현실 속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는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 객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은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07. 답 1

첫 번째 문장은 진정(眞正), 두 번째 문장은 진정(鎮靜), 세 번째 문장은 진정(陳情)이다.
진정(眞正: 참 진, 바를 정): [부사] 거짓 없이 참으로.
진정(鎮靜: 누를 진, 고요할 정): 격앙된 감정이나 아픔을 가라앉힘.
진정(陳情: 펼 진, 뜻 정):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함.

08. 답 3

여기서 쓴 ‘만큼’은 조사가 아닌 명사로 앞의 ‘애쓰’이 관형어의 형태로 붙었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애쓰 만큼(○)

09. 답 2

‘어슴푸레’가 맞다. 주로 ‘희미하고 흐릿한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10. 답 2

분열(分列)(×) ⇨ 분열(分裂)(○)
분열(分裂: 나눌 분, 찢을 열): 집단이나 단체, 사상 등이 갈리어져 나뉨.
분열(分列: 나눌 분, 벌일 열): 각각 갈라져서 늘어섬.

[오답 피하기]

① 내포(內包: 안 내, 쌀 포) ③ 곤란(困難: 괴로울 곤, 어려울 란(난))

④ 경향(傾向: 기울어질 경, 향할 향)

11. 답 1

주인공 ‘나’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머니에 의해 골방에 갇혀 참전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나’는 참전하고 싶어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친구들과의 연락조차 차단당한 채로 대학 강의가 재개되어도 강의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숨어 지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을 지독한 염증과 자기혐오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12. 답 3

지금 이 글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은 ‘심벌’ 중심의 한국 문화의 특성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집단의식이다.

[오답 피하기]

①번의 경우 이 글에서 따로 언급된 바 없고, ②번과 ④번은 주제를 뒷받침하는 부연문장이다.

13. 답 4

주어진 글에서 성호는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의 의미를 혼동하여 말을 하고 있고 주연이는 ‘가리키다’의 본래적 의미로 해석하여 대답하고 있다. 즉, 단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이다. ④번의 경우가 적절한 예로써,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를 혼동하여 벌어진 결과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잘못된 높임 표현의 예이다. ‘국어 선생님께 그 책을 드린 사람이 사모님 맞지?’로 표현해야 한다.

②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 ‘어제’와 호응되는 용언을 잘못 사용한 예이다. 우리 국어의 표현은 시제와 상이 호응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용언의 경우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인 ‘어제’와 어울리는 어미는 ‘-았/-었’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어제 저녁쯤 제주도에 도착했던 것 같은데.’로 고쳐야 옳다.

③ 잘못된 번역투의 문장이다. ‘have’ 동사를 직역한 형태로 사용한 경우인데, ‘그럼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전체 회의를 열겠습니다(하겠습니다).’로 고쳐야 옳다.

14. 답 2

ㄴ. 주책: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을 뜻한다. ‘주착’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준어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용사 형태로 사용할 때 맞는 말은 ‘주책없다’이다. ‘주착이다’, ‘주책맞다’, ‘주책이다’는 모두 틀린 표현이다.

ㄷ. 생판: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손을 대지 아니함의 뜻이다. 종종 ‘영판’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판’은 ‘아주’라는 부사의 잘못된 표현이다.

ㄹ. ‘경희 어머니께서~고급 정장을~사 주시다.’의 형태이다. 올바른 높임 표현을 사용했다.

ㅅ. 비교의 문장인데 옳게 표현하여 맞는 문장이다.

ㅇ. 이 문장은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올바른 조사를 사용했는지의 여부이다. ‘미국 정부’는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조사를 ‘-에’로 사용한다. ‘-에게’를 사용하면 안 된다.

ㅈ. 어미 ‘-데’와 ‘-대’의 차이를 묻고 있다. ‘-데’는 말하는 화자가 직접 경험했거나 느꼈던 부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어미이지만, ‘-대’는 주로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사

용하는 어미이다.

[오답 피하기]

ㄱ. 안절부절했다 ⇨ 안절부절못했다 : 한 단어이다.

ㄴ. 영판 ⇨ 아주

ㄷ. 알맞지 않는다(×) 알맞지 않다.(○) 형용사는 현재형이 안 된다.

ㄹ. 엄한 ⇨ 애먼 사람.

ㅋ. 그런데까지 ⇨ 그런 데까지 : ‘데’는 여기서 의존명사로 사용되어 ‘장소’, ‘곳’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이 관형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15. 답 2

우리 국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각어가 많다. 감각어는 주로 색채어와 미각어가 세분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붉다, 불그스름하다, 시뻘겋다, 새빨갳다’ 등 ‘빨갳다’의 세분화된 단어들을 감각어라 부른다.

[오답 피하기]

① 경어법은 지역차, 세대차, 연령차, 남녀의 성차(性差), 역사적 경로사상 등의 요인에 의해 발달한 언어예절의 형태이다.

③ 고유어가 지금도 다수 살아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한자어가 사용된 까닭에 고유어의 자리를 대체하여 사용되어 사라진 고유어들이 많은 것 또한 우리 국어의 현주소이다.

④ 친족 관계 언어가 나름대로 발달하긴 했으나, 우리 국어의 경우 단어의 성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단어의 성 구별은 서구 문학의 도입 이후 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 답 4

이 작품은 김만중의 ‘구운몽’으로, 주인공 성진의 꿈(인간 양소유로 환생하여 인간 세계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꿈)이 결국은 덧없는 것임을 깨우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인생의 부귀영화에 대한 덧없음을 나타내는 주제이기는 하나 ‘권선징악’은 소설 전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등장인물 중에서 악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17. 답 1

밀줄 친 부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①번의 경우 열반을 꿈꾸고 있지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번뇌(어지러운 티끌)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답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②: 강한 의지로 시련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육사, ‘교목’)

③: 시적 자아의 상태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김남조, ‘설일’)

④: 자수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상태이다. (허영자, ‘자수(刺繡)’)

18. 답 2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물아일체의 경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자연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안빈낙도의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자연물 자체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19. 답: 4

‘젊은이’는 비밀 집합사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새를 꺼내온다. 이는 ‘젊은이’에 의해 속
것이 잘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새들은 자유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구
속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존재의 성격과 관련짓는다면 헤어날 수 없는 굴
레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 답: 1.

유추는 두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④는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실패에도 좌
절하지 않는 사자의 태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추로 볼 수 있다.

【모의고사 제3회】

01.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잘못 표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납량[나방], 상견례[상결례], 입원료[이원료], 이원론[이월론], 공권력[공궤력], 생산량
 [생산량], 물난리[물난니], 선릉[선능], 정릉[정능], 능막염[능망념], 등용문[등용문], 식
 용유[싱농뉴], 내복약[내봉약], 곤란[골란], 샅길[사길]

- 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

02. 다음 가사 작품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만분가: 유배가사로 무오사화 때 조위가 유배지인 순천에서 지은 가사
- ② 만언사: 정조 때 안조원이 추자도에서 겪은 참상을 기록한 유배가사
- ③ 연행가: 숙종 때 송주석이 조부인 송시열을 따라 덕원에서 지은 유배가사
- ④ 북천가: 김진형이 함경도 명천에 갔다 돌아오기까지의 생활과 견문을 쓴 가사

0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내겐 당신뿐이기에 그저 먼발치서 당신이 보고픈 뿐이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 ② 내 발길 가는 대로 건다가 내 나름대로의 심정을 정리하게 되었다.
- ③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방에서, 내 아내에게만큼은 정말 잘 해주고 싶었다.
- ④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그녀 밖에 없었고, 그녀를 알아주는 사람도 나밖에 없었다.

04.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앉아 있는 아이들 중에서 유독 댁의 아드님이 눈에 띄더군요.
 ② 그 사람이 소속된 단체는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우리 회사로 오기 전에 추천서는 꼭 띄고 와야 한다.
 ④ 귀가 번쩍 띄는 이야기 해 줄까?

05. 다음 글에서 나타나는 덕목과 관계가 있는 한자성어는?

동이면 우산리 금강유원지에서 강 건너 험준한 산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지매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 사는 지악지라는 사람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갔으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집안이 가난하여 입고 먹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늙어지니 자연 병이 생겨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악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밭으로 재가 날아드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겨 동산에 뛰어 올라 바라보니 불난 곳이 바로 지악지의 집인지라 거동 못하는 어머니가 집안에 혼자 있음을 생각하고는 한 달음에 뛰어가 어머니를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 [illegible]

06. 다음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리. 너는 차가운 땅 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논과 밭에는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 속에 깊이 묻어 놓았다. 차가움이 영긴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낱알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 속에 깊이 묻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

옛 늙은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 속에 묻고, 이제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보릿속에 간직하며, 차가운 허리도 잊고 집으로 돌아오고 했다.

- 한옥구, '보리'

- ① 회고의 수법을 사용하여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 ② 자연물을 통해서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보리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보리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07. 다음 중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1925년 박영희, 이상화 등에 의해 결성된 경향적 예술단체이다.
- ② 신경향파를 계승하면서 새롭게 민족주의 문학으로 대두되었다.
- ③ 1930년대 초 해외문학과 출신인 김진섭, 이하운 등과 대립하면서 '내용·형식 논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 ④ 원래 '염군사'와 '파스칼라' 두 단체가 연합하여 만들었다.

08. 중심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이 글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이인국 박사는 그 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애, 너 그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식아, 별수없다. 왜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 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아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이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썸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낫세로야 그걸 못하겠니?”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텐코프 소좌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 짓고야 말았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거저 표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재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쩔라구…….”

“가만있어요, 호랑이두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할대로 해 봅시다.”

“그래도 저 어린것을 어떻게 노서아까지 보낸단 말이요.”

“아니, 중학교 야들도 가지 못해 골들을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 가 건딜라구.”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괜한 소리, 재가 소련 바람을 쏘이구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할 거

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 번 살아 봅시다.”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시키고 그는 아들의 유학을 관찰하였다.

‘흥 혁명 유가족들 가기 힘든 구멍을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구 보자…….’

그는 만장의 기쁨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 전광용, ‘꺼삐딴 리’

- ① K사장과 등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공손히 마주앉아 얼굴에는 ‘나는 선배인 선생님을 극히 존경하고 양모합니다.’하는 비굴한 미소를 띠고 있는, 구변 없는 구변을 다하여 직업 동양의 구걸 문구를 기다랗게 늘어놓던 P... P는 그러나 취직 운동에 백전백패(百戰百敗)의 노졸(老卒)인지라 K씨의 힘 아니 드는 한 마디의 거절에도 새삼스럽게 실망도 아니 한다.

-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 ② 어떠한 달밤, 사면은 고요적막하고 별들은 드문드문 눈들만 깜빡이며 반달이 궁중에 뚜렷이 달려 있어 수은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 낸 듯이 청명한데, 삼룡이는 검둥개 등을 쓰다듬으며 바깥 마당 명석 위에 비슷이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여 보았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궁중에 달보다도 더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하였다.

- 나도향, ‘병어리 삼룡이’

- ③ 현은 서울 정황에 불쾌하였다. 총독부와 일본 군대가 여전히 조선 민족을 명령하고 앉았다는 것과 해외에서 임시 정부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다. 혹은 오늘 저녁에 들어온다, 하는 이 때 그 새를 못 참아 건국(建國)에 독단적인 계획들을 발전시키며 있는, 또 문화인들의 대부분이 아직 지방으로부터 모이기도 전에 무슨 이권이나처럼 재빨리 간판부터 내걸고 서두르는 것들이 도시 불순하고 경박해 보였던 것이다

- 이태준, ‘해방 전후’

- ④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탄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솔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개울에서 떡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 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

- 김동인, ‘감자’

09. 다음 중 밑줄 친 관용표현의 사용이 잘못된 것은?

- ① 묘령의 소녀가 그 사람을 찾아 왔다.
② 운용의 묘를 살려 일을 성사시켰다.
③ 쉬파리 꿀뚝 빗쟁이들이 몰려들었다.
④ 면접을 잘 봤으니 저 회사 입사는 떼어 놓은 당상이겠군.

1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과 말을 이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유사한 것은?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횼 놓고, 뒤횼 안에 궤를 짜고, 그 안에 너를 필자(必字) 형으로 결박하여 넣고, 쟁배목,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어지럽게 잠겨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니.
한 해도 열두 달이고, 한 달 서른 날에 나를 볼 하루가 없으리.

- 사설시조

- ①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이면 다시 돋건만,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돌아올 길 만무로다.

- ② 첫날엔 오십 리, 다음 날엔 사십 리, 삼십 리, 점점 줄어지다가는, 하루씩 어느 마을에고 들어가 쉬었다.
- ③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런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
- ④ 답아, 답아,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11. 다음 두 글을 비교했을 때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千歲(천세) 우희 미리 定(정)ᄒᆞᆫ 漢水(한슈) 北(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ᄒᆞᆫ 卜年(복년)이 궁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ᄒᆞᆫ샤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서. 洛水(낙슈)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125장

(나)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놀이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아니하여 백성의 마음이 점차 왕실에서 멀어져갔다. 그런데도 태강왕은 선조인 우임금의 치덕만 믿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낙수로 사냥을 간 지 백 일이 넘도록 환궁을 하지 않고 여흥만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궁(窮)의 제후인 예가 백성을 위해 왕을 폐위시켰다.

- ① 용비어천가에는 정치적 의도가 배제되어 있다.
- ② 용비어천가를 창작한 이들은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려했다.
- ③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를 찬양하기 위한 의도로 나온 것이다.
- ④ 용비어천가의 창작 당시 조선 사회는 혼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12. 다음 중 밑줄 친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르게 순화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이번 취로사업(就勞事業)의 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 생계 지원 사업
- ② 허가 받지 않은 차량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으실 수 있음을 계고(戒告)합니다. ⇨ 알립니다.
- ③ 지출 내역서(內譯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니다. ⇨ 명세서
- ④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셔서 관련 증빙서류(證憑書類)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1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나라히 파망(破亡)ᄒᆞ니 피와 ㄹ름썸잇고
 잣 앓 보미 쫄와 나무썸 기꺾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歎)ᄒᆞ니 고지 늪물롤 썩리게코
 여희여슈물 슬호니 새 ㄹ스물 놀래느라.
 봉화(烽火)ㅣ 석들롤 니써시니
지빋 음서(音書)논 만금(萬金)이 스도다.
 썸 머리롤 글구니 쑈 더르니
 다 빈혀롤 이기디 몬홀 듯ᄒᆞ도다.

- 두보, ‘춘망(春望)’

- ① 다락엔 달이 밝고 날씨는 쌀쌀코야.
 향수는 가을인 제 구름 끝 썩게 도니,
 소식은 들을 길 없어 혼자 밤을 새나니.

반딧불이도 나라에 따라 국가색을 띤다. 한국 반딧불이는 청백광이 나고 일본의 그것은 황백광, 중국의 그것은 적백광이 강하다 한다. 빛은 달라도 반딧불이 발생 설화에는 공통점이 있다. _____는 것이 그것이다. 동양 삼국의 감정공감대의 분모를 그에서 보는 것 같다.

한양 성문 밖 한 부잣집에 숙경이라는 고명딸이 있었는데 어느 봄날 그 마을에 사는 순봉이가 지나다가 초당에서 책을 읽고 있는 숙경을 보고 상사(相思)에 빠진다. 하지만 늙은 과부 자식인 그인지라 소원을 풀지 못하고 죽으면서 초당 근처를 날아다니는 벌레라도 되게 해달라고 염원하며 죽었다. 그 녀이 반딧불이가 되어 밤만 되면 초당 근처를 나는데 숙경이는 무심코 이를 잡아 종이 봉지 속에 넣어 머리맡에 둬으로써 공존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 반딧불이는 살인·강도·방화를 일삼는 구로헤이에라는 악인이 잡혀 생매장 당하는데 그의 어린 아들이 더불어 묻어달라며 달려가 묻혔다. 무고한 이 효자의 녀이 눈을 통해 날아 나온 것이 반딧불이라는 것이다.

한국 반딧불이가 심정적이고 일본 반딧불이가 도덕적이라면 중국 반딧불이는 실질적이다. 어머니를 일찍 여윈 소년이 모진 계모 슬하에서 사는데 계모가 어느 날 동전 몇 닢을 주며 산 너머 마을에 가 콩기름을 사오라고 시켰다. 산을 넘으면서 소년은 어디선가 빠뜨려 동전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이를 찾아다니는데 날은 저물고 폭풍 속을 헤매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죽어서도 계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딧불이가 되어 밤에도 자지 않고 찾아 헤맨다는 것이다.

- 이규태(前 조선일보 논설), '반딧불이 계좌(計座)'

- ①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은 이의 녀이 그 여한으로 완전히 못 죽고 빛을 발하고 있다
- ② 억압적인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저항의식이 죽어서도 남아서 빛을 발하고 있다
- ③ 숭고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녀이 저승에서라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빛을 발하고 있다
- ④ 저항하는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의 녀이 그 여한 때문에 빛을 발하고 있다

1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입추의 여지가 없는 경기장을 보고 나는 입이 딱 벌어졌다. - 많은 사람이 늘어서 있는
- ② 그는 어느 때처럼 격의 없는 말투였다. - 가리는 것 없이 친밀한
- ③ 이제 그만 각설하고, 노래나 한 번 부르지요. - 하던 이야기를 그만두고
- ④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 깊이 감사하는 마음

18.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쓴 것은?

음악 감상 시간에는 가급적 졸지 맙시다.
그 연기자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감상에 잘 빠진다.
전시회를 둘러본 감상을 말씀해 주시죠.

- ① 感想, 感傷, 感賞
- ② 鑑賞, 感傷, 感想
- ③ 鑑賞, 感想, 感賞
- ④ 感想, 感傷, 鑑賞

19. 다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유사한 내용이 표현된 것은?

안녕히 계세요 /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 늘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판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술천이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 서정주, '춘향 유문'

- ① 팔곡(八曲)은 어딴디오 금탄(琴灘)에 돌이 붉다.
옥진금휘(玉軫金徽)로 수삼 곡(數三曲)을 노는 말이
고조(古調)를 알 이 업스니 혼즈 즐겨 흥노라.
- ② 강산이 도타 흔들 내 분으로 누엇느냐.
님군 은혜를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흥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 ③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매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밷여든 네 논 점 밷여 주마.
올 길헤 뽕 빠다가 누에 머겨 보자스라.
- ④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꽃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촉려 흥노라.

20. 다음 서로 다른 '아리랑'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적절하게 비교한 것은?

(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밀양아리랑'

(나) 정든 님이 오셨는데 수인사를 못 하고
행주치마 입에다 물고서 눈으로만 반기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 주게.

- '정선아리랑'

- ① (가): 은근한 태도, (나): 솔직한 태도
- ② (가): 적극적인 태도, (나): 솔직한 태도
- ③ (가): 솔직한 태도, (나): 은근한 태도
- ④ (가): 소극적인 태도, (나): 적극적인 태도

【모의고사 제3회 해설】

01. 답 3

납량 [나방] ⇨ [납량] : ‘ㄴ,ㄹ’ 앞의 무성자음 ‘ㅂ’은 ‘ㄱ’으로 발음한다.

상견례 [상견네] 이원론[이원논] 공권력 [공권녁] : ㄴ첨가 없다.(예외)

물난리 [물랄리] 선릉 [설릉] 식용유 [시공뉴] : ㄴ첨가 있다.

샷일 [상닐] : ‘ㄴ’첨가가 발생하면서 자음동화가 일어난다.

[오답] ‘정릉’은 ㅇ+ㄹ=ㄴ 으로 되는 비음화에 의거해 [정능]으로 발음한다.

02. 답 3

연행가(燕行歌): 1866년(고종 3) 중국 베이징[北京(북경), 燕京(연경)]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연행가’라 부른다.]에 다녀온 홍순학(洪淳學)이 지은 기행가사. 홍순학이 가례주청사(嘉禮奏請使)의 서장관으로 1866년 4월 9일 한양을 출발하여 그해 8월 23일 돌아올 때까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은 3924구의 장편 가사이다. 예리한 관찰과 사실적인 묘사로 김인겸(金仁謙)의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와 더불어 기행가사의 으뜸으로 꼽힌다.

03. 답 4

이 문장에서 쓰인 ‘-밖에’는 조사이다. 그러므로 두 군데 모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당신뿐이기에(조사로 쓰인 경우 붙여 씀), 보고플 뿐이기에(명사라서 띄어 씀)

② 가는 대로 (명사), 내 나름대로 (조사)

③ 들릴 만큼 (명사), 내 아내에게만큼 (조사)

04. 답 3

‘물건을 몸에 지니다’는 뜻의 동사는 ‘띠다’이다. <용례> 추천서를 띠고 와라.

05. 답 1

‘효행(孝行)’과 관련된 한자성어를 고르면 된다. ‘혼정신성(昏定晨省, 어두울 혼, 정해질 정, 새벽 신, 살필 성)’은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 드리고 아침에는 부모님의 안부를 여쭙는다는 뜻으로 효행을 일컫는 한자성어이다.

[오답 피하기]

② 만시지탄(晩時之歎, 늦을 만, 때 시, 어조사 지, 탄식할 탄): 시기가 늦어서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간혹 이것을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하지 못한 것에 따른 자식의 탄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

③ 다기망양(多岐亡羊, 많을 다, 갈림길 기, 잃을 망, 양 양): 달아난 양을 찾으려 할 때 갈림길이 많아 끝내는 양을 잃는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진리를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④ 목후이관(沐猴而冠, 머리감을 목, 원숭이 후, 어조사 이, 갓 관): 원숭이가 관을 썼다는 뜻으로, 의관(衣冠)은 갖추었으나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6. 답 4

‘보리’를 의인화하여 보리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보리를 찬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번의 경우처럼 자연물을 통해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며, ③번의 경우처럼 성장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07. 답 2

민족주의 문학을 주도했던 학파는 국민문학과였다.

08. 답 1

주인공 이인국 박사는 시류에 편승하는 권력지향주의자이면서 기회주의자이다. 서술자는 이 주인공을 아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은 ①번의 ‘레디메이드 인생’이다.

09. 답 1

‘묘령(妙齡)’은 스무 살 안팎의 여자 나이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묘령의 소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묘령의 여인’, 혹은 ‘묘령의 처녀’로 표현해야 옳다.

[오답 피하기]

② 운용(運用)의 묘(妙): 절대로 ‘운영(運營)의 묘’가 아니다.

③ 쇠파리 꿇듯: 절대로 ‘쇠파리 꿇듯’으로 쓰지 않는다.

④ 떼어 놓은 당상: ‘당상(堂上)’은 정3품 이상의 벼슬인 ‘당상관’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떼어 놓은 당상’의 의미는 ‘당상관 자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는 뜻으로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10. 답 4

이 시조는 ‘무쇠 성 → 담 → 집 → 뒤주 → 퀘’의 식으로 임이 갇혀 있을 것 같은 공간을 연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번의 경우 역시 연쇄법을 사용한 경우이다.

[오답 피하기] ②번의 경우를 조심하자. 이 경우는 ‘점강법’의 예이다.

11. 답 2

(가)인 ‘용비어천가’는 경천근민하지 못한 임금 태강왕을 폐위시킨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글 (나)는 관련된 원래 고사이다. 이는 조선의후대 임금들에게 고사 속의 태강왕처럼 선대 왕들의 덕만 믿고 임금된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경우 그 자리를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권계의 교훈, 즉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주고자 한 것이다.

12. 답 4

증빙서류(證憑書類)는 증거서류(證據書類)와 같은 말이다.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말이다.

13. 답 1

밑줄 친 부분에서 화자는 전란의 와중에 집안 식구들을 걱정하고 있다.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①번의 경우 고향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밤을 혼자 새우고 있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다.

14. 답 2

지정(指定, 가리킬 지, 정할 정): 가리켜서 확실히 정함. 혹은 어떤 것에 특정 자격을 줌.

[오답 피하기]

①번의 ‘지정(地釘, 땅 지, 못 정)’은 집터의 바닥에 박는 나무 혹은 콘크리트 기둥을 뜻하는 단어이다.

(나)의 문장에서 ‘조절’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한다. ⇨ 調節; 고를 조, 마디 절

③번의 ‘조절(操切, 부릴 조, 끊을 절)’은 ‘잡아서 단속하다’는 의미이고, ④번의 ‘조절(阻絶, 험할 조, 끊을 절)’은 ‘막히고 끊어지다.’의 뜻이 있다.

15. 답 1

어느 양옥집의 세입자로 들어간 ‘나’가 바라보는 집주인 가족의 모습이다. 경제적으로 중산층일 것 같은 이 가족의 모습이 세입자인 ‘나’에게는 너무나 기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보이고 있다. 동대문 근처 창신동 빈민가에서 살았던 ‘나’한테는 이 모습 자체가 아주 신기한 장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빈민가에 어울려 살던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그 친근함을 이들 ‘집주인 가족’에게서는 느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나’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16. 답 1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의 반딧불이 설화가 등장하고 있다. 이 세 나라의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못 다한 일들(한국은 이루지 못한 사랑, 일본은 아버지와 같이 생매장당한 어린아이, 중국은 잃어버린 동전 찾기)을 남겨두고 죽은 이의 한(恨)이 된다. 이 글은 전 조선일보 주간이었던 고(故) 이규태 씨의 칼럼으로 2002년 4월 1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글이다.

17. 답 1

‘입추(立錐)’란 송곳을 세운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관용표현인 ‘입추의 여지가 없는’은 ‘송곳의 끝도 세울 수 없다’는 뜻으로, 발 들여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차 있는 형세를 나타내는 말이다.

18. 답 2

감상(鑑賞, 거울 감, 상줄 상):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감상(感傷, 느낄 감, 상처 상): 하찮은 일에도 슬퍼서 마음이 상함.

감상(感想, 느낄 감, 생각 상): 마음속에서 나오는 느낌이나 생각.

19. 답 4

이 시에 등장하는 ‘검은 물’, ‘하늘의 구름’, ‘소나기’ 등은 모두 물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대상이다. 즉, 춘향 자신이 죽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이 도령을 향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시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임에 대한 일편단심’을 찾으려면 되는데, ④번의 경우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에게 다가가고 싶다고 함으로써 임에 대한 일편단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번은 달밤의 경치를, ②번은 자연의 풍류와 임금에 대한 감사, ③번은 농촌 생활의 상부상조를 노래하고 있다.

20. 답 3

‘밀양아리랑’은 화자가 임에게 ‘날 좀 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솔직하고 적극적인

다. 이에 반해 ‘정선아리랑’의 화자는 임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눈만 흘기는 껌썩한 사람이다. 즉, 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 은근히 내숭 떠는 화자가 나온다.

【모의고사 제4회】

01. 다음 중, <보기>에서 가리키는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아버지의 사촌 형제
㉡ 남편의 누이
㉢ 손위 누이의 남편

- ① 종숙 - 시누이 - 매형 ② 종숙 - 시누이 - 종질
③ 당숙 - 올케 - 종질 ④ 당숙 - 시누이 - 종질

02.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제 이름은 금순이예요.
② 구멍을 좀 더 크게 찢어 벌겨야, 안에 걸린 것들이 잘 나오지.
③ 큰 일 한 번 치뤘더니 몸살이 다 났네.
④ 꼭 그런 것만 문제는 아니예요!

03. 다음 단어를 한자로 표기했을 때 순서대로 올바르게 쓴 것은?

입장권 - 대기권 - 참정권

- ① 入場券 - 大氣圈 - 參政權 ② 入場券 - 大氣權 - 參政圈
③ 入場圈 - 大氣券 - 參政權 ④ 入場圈 - 大氣圈 - 參政券

04. 다음 글의 저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나라에는 소인이 없다. 군자 또한 없다. 소인이 없는 것은 나라에 다행스런 일이나 만약 군자가 없다면 어찌 능히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아니다! 군자가 없으므로 소인이 없는 것이다. 만약 나라에 군자가 있으면 소인은 감히 그 형적을 숨길 수가 없다. 군자와 소인은 음과 양, 낮과 밤의 관계와 같다.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고, 군자가 있으면 반드시 소인이 있다. 대개 군자는 정당하고 소인은 간사하며, 군자는 옳고 소인은 그르며 군자는 공변되고 소인은 사심을 품는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 간사함과 정당함, 옳고 그름, 공변됨과 사심을 품은 것을 분별해서 살핀다면 소인된 자가 감히 그 실정을 숨기겠는가?

소위 군자란 것과 소인이란 것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와 같으면 군자이고, 자기와 다르면 소인이다. 자기와 다르면 배척해서 간사하다 하고, 자기와 같으면 추천해서 정당하다고 한다. 옳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옳게 여기는 것이고, 그르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공정함이 간사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 허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중 ‘문부(文賦)’

- ① 사회 지배계층이 출선수범하지 못하는 세태
② 아랫사람의 의견이 위로 전달되어 반영되지 못하는 계층적 한계
③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옥석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현실
④ 봉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의 중요도가 결정되는 현실

- ③ 炎凉世態: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며 따르지만 세력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세상인심.
 ④ 囊中之錐: 아무리 특별한 재주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13. 다음 밑줄 친 한자어 중 잘못 표기된 것은?

- ① 극심한 노사 대결은 원만한 합의로 귀결(歸結)되었다.
 ②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입장에서 모호한 법조문의 남발(濫發)은 금물이다.
 ③ 조선 후기는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過渡期)였다.
 ④ 모든 연구 과정이 결국 답보(答報) 상태로 빠져 버렸다.

14. 다음 글의 밑줄 친 ‘소녀(여인)’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아무 고을 아무 동리에 사웁는 소녀는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 앞에 사뢰웁니다. 이즈음 변방 이 허물어져 왜도적들이 쳐들어 오니 싸움이 쉬일 날 없사와 봉홧불이 해마다 그칠 날 이 없사웁니다. 그리하여 건물이 파괴되고 노략질을 하오니 친척과 종들은 동서 사방으로 피난하여 정처없이 유리결식 하였나이다. 수양버들 같은 가냘픈 소녀의 몸이오라 먼 길에 많은 고생을 겪었사운데 야속한 우리 부모 궁벽한 곳에 옮겨 두어 초야에 묻혀 사온 지가 속절없이 삼 년이나 되온지라, 달 밝은 가을 밤과 꽃 피는 봄철에 고단한 영혼 어이 위무할 길 있사오리까? 인간의 한평생이 이미 정해져 있사웁고, 부부의 백년 가약 또한 피할 길이 없사오니 바라웁건대 하루 바삐 꽃다운 인연과 배필을 점지해 주시웁소서.”

- 김만중,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 ①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비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뚱탁 바가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 ②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래.
 松鵲(송골)미도 갓고 줄에 안즌 저비도 갓고 百花園裡(백화원리)에 두루미도 갓고 綠水波瀾(녹수파란)에 비오리도 갓고 싸히 펍 안즌 쇼로기도 갓고 석은 등걸에 부형이도 갓데.
 그려도 다 각각 남의 스랑인이 皆一色(개일색)인가 흐노라.
- ③ 梧桐(오동)에 돛는 빗발 無心(무심)히 돛건마는
 나의 시름 하니 넉넉히 愁聲(수성)이로다.
 이 後(후)야 입 넉은 남기야 시물 줄이 이시랴.
- ④ 브람이 눈을 모라 山窓(산창)에 부뒹치니,
 찬 氣運(기운) 식여 드리 줌든 梅花(매화)를 侵擄(침노)한다.
 아무리 열우려 흐인들 봄 쫓이야 아슬소냐.

15. 다음 중 각 작품의 제목과 후렴구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 ① 정읍사 -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룽디리
 ② 가시리 - 위 증즐가 대평성대
 ③ 쌍화점 -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룽디리
 ④ 이상곡 - 다룽디우셔 마득사리 마득너즈세 너우지

16.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아래 작품의 ‘꽃고리새’와 기능이 유사한 것을 고르면?

- 고려가요, ‘동동(動動)’

- 정철, '관동별곡'

(가) 산새도 날아와 / 우짖지 않고,
구름도 떠 가곤 / 오지 않는다.
인적(人跡) 끊인 곳 / 홀로 앉은 /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 빈 골 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이며 / 붉게 해는 넘어가고,

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회 CODEX 총회에서 김치가 기무치를 제치고 국제식품을 최종 승인받자 우리 정부와 김치 제조업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CODEX 규격에 의거해 김치를 수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최종 승인으로 한국의 김치 생산업체들은 일본 생산업체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기무치 생산업체들은 우리 업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마케팅 전략으로 한국산 김치를 견제하고 있다. 지금의 일본 업체들은 김치를 모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각종 감미료를 사용해 발효 식품 특유의 맛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대일 김치 수출액이 올 상반기에는 감소세로 반전했다. 게다가 일본업체들의 기무치와 김치 생산량은 일본의 한국 김치 수입 증가량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한국산 김치의 가격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다.

- ① 일본에서는 지금 김치 열풍이 불고 있고 일본의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을 김치 생산량에서 압도하고 있다.
- ② 김치는 CODEX의 승인으로 이제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으나, 역설적으로 일본의 김치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 ③ 한국산 김치는 CODEX의 승인으로 김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으나, 일본 업체들의 견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④ 김치가 비록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강력한 마케팅 전략은 한국 김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모의고사 제4회】

01. 답 1

‘종숙(從叔)’은 아버지의 사촌 형제로 나와는 5촌 관계에 있는 숙부를 뜻한다. 다른 말로 ‘당숙(堂叔)’이 있다. 둘 다 같은 뜻이다. 그리고 손위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용어는 ‘매형(妹兄), 매부(妹夫), 자형(姊兄)’ 등이 있다.

【오답 피하기】

‘올케’는 여자 기준에서 오빠나 남동생의 부인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종질(從姪)’은 사촌 형제의 아들로 촌수상 나와 5촌 관계에 있는 조카를 뜻한다.

02. 답 3

치뤘더니(×) ⇨ 치렀더니(○) : 기본형은 ‘치르다’이다.

【오답 피하기】

① ‘금순+ 이(접미사)+ -예요(이에요)’의 형태이다. /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서는 줄어들지 못한다. (철수예요, 장남이에요) 이 경우 받침 없는 말 다음에 붙기 때문에 ‘금순이에요’가 맞다.

<참고>금순+ 이에요. 금순이어요. 금순이+ 이에요=금순이에요. 금순이+ 이어요=금순이어요 : 모두 맞는 말이다.

② ‘별기다’는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보이도록 헤쳐 벌리다’의 뜻을 갖고 있는 말이다.

④ ‘아니예요’는 ‘아니다’의 어간 ‘아니-’에 ‘-예요’가 결합된 것이다. (아니예요=아니어요=아녜요,아녀요: 다 맞음)

03. 답 1

입장권(入場券; 들어갈 입, 마당 장, 문서 권)/대기권(大氣圈; 큰 대, 기운 기, 우리 권)

참정권(參政權; 간여할 참, 정사 정, 저울질할 권)

04. 답 3

이 글에서는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군자가 없기에 소인도 없는데 이는 군자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며, 곧 군자가 없는 것은 훌륭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첫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다.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이 속의 ‘성수시화’는 별도로 전하는 ‘학산초담(鶴山樵談)’과 함께 역대 시화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다.

05. 답 3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 또는 ‘아기씨’로 부른다. 아이들의 고모라고 하더라도 ‘고모’라는 호칭을 쓸 수 없다. 이는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 / 서방님’ 대신 ‘삼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오답 피하기】일반적으로 여동생의 남편에게 쓰는 호칭은 ‘매제(妹弟)’이다. 그러나 ‘매부(妹夫)’도 쓸 수 있다. ‘매부’는 순위나 손아래의 구분이 없이 여자형제의 남편을 통칭해서 쓰는 말이라서 그렇다.

06. 답 2

제시문은 도덕규범의 의미와 그 기능에 관한 글이다. 그러므로 서두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존재하는 도덕규범’이라는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단락 (나)】 그리고 그 다음

으로 이러한 도덕규범의 성격을 부연 설명하는 단락이 오는 것이 적절하며,[단락 (다)] 이어서 도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단락이,[단락 (라)]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인 단락이 와야 한다.[단락 (가)]

07. 답 3

㉠은 ‘화(華)’를 나타내는 것이고, ㉡은 ‘영(榮)’을 나타낸 것이다.

08. 답 4

진갑(進甲)은 환갑의 이듬해 생일. 즉, 사람 나이 62세를 뜻하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나이 60세: 주갑(周甲), 화갑(華甲), 회갑(回甲), 환갑(還甲), 환력(還曆)

09. 답 4

표준어인 단어: 사돈, 냄비, 설거지, 사글세, 강낭콩, 칸막이, 털어먹다, 미루나무, 괴팍하다, 수평, 빠리, 회수(回收), 엇가래, 철딱지, 삶다, 튀기

[오답 피하기]

푼나기(×) ⇨ 푼내기(○), 오뚝이(×) ⇨ 오뚝이(○), 으레(×) ⇨ 으레(○), 쌍둥밤(×) ⇨ 쌍둥밤(○), 담장이덩굴(×) ⇨ 담쟁이덩굴(○), 애닭다(×) ⇨ 애달프다(○), 알타리무(×) ⇨ 총각무(○), 세째(×) ⇨ 셋째(○), 삼팽이(×) ⇨ 살팽이(○), 솟병아리(×) ⇨ 수평아리(○), 옷입술(×) ⇨ 윗입술(○), 소금장이(×) ⇨ 소금쟁이(○), 솟소(×) ⇨ 수소(○), 장사아치(×) ⇨ 장사치(○), 회수(회수) (○), 회數(횃수)(○)

10. 답 4

④번은 올바른 피동표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① 순화시키는 데 ⇨ 순화하는 데 ② 확대시켜서 ⇨ 확대해서 ③ 성취시켜야 한다. ⇨ 성취해야 한다.

11. 답 1

이 시에서는 물질적인 것(도시 문명)과 정신적인 가치(현대인들을 자정시켜 줄 수 있는 시)를 대비시켜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물화되어가는 현대인들(열대어로 표현)이 살아가는 현실의 암담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갇힌 공간(첻바퀴처럼 돌아가는 도시)을 설정하여 화자의 갑갑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행에서 아마존 강의 후리지아 꽃이라는 생명의 활기를 통해 우울한 분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

12. 답 4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낭, 가운데 중, 갈 지, 송곳 추): 주머니 속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 숨어 있어도 그것이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일컫는 말.

[오답 피하기]

- ① 마부위침(磨斧爲針; 갈 마, 도끼 부, 위할 위, 바늘 침)
- ② 빈자일등(貧者一燈; 가난할 빈, 놋 자, 하나 일, 등잔 등)

③ 염량세태(炎凉世態; 불탈 염, 서늘할 량, 세상 세, 모양 태)

13. 답 4

‘답보(踏步; 밟을 답, 걸음 보)’는 제자리걸음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여기 보기에 제시된 답보(答報; 대답할 답, 갚을 보)는 응답으로 올리는 보고를 일컫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귀결(歸結; 돌아갈 귀, 맺을 결):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름
- ② 남발(濫發; 넘칠 남(람), 쓸 발): 법령이나 문서 땅위를 마구 공포하거나 발행하는 것
- ③ 과도기(過渡期; 지날 과, 건널 도, 기약할 기):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거나 바뀌어 가는 도중의 시기. 흔히 사회적인 질서, 제도, 사상 따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를 이른다.

14. 답 1

이 말을 하고 있는 ‘소녀(여인)’은 부모에 의해 초야 간혀 살아야 하는 신세이다. 그녀의 외로움은 짝을 만나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다. ①번의 시조가 외로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어 이와 유사하다.

[오답 피하기]

- ② 김수장의 사설시조이다. 남편 혹은 정인에게 사랑받는 평범한 여인들을 노래한다.
- ③ 김상용의 시조로 비오는 날 수심에 젖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안민영의 시조로 매화를 찬양한 노래이다.

15. 답 3

‘쌍화점’의 후렴구는 ‘더러둥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는 ‘서경별곡’의 후렴구이다.

16. 답 3

‘곳고리새’는 화자를 찾지 않는 무정한 임[녹사(綠事)]과 대비되는 존재이다. 임은 화자를 찾아오지 않는데, ‘곳고리새’만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곳고리새’는 화자의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상물이다. ③번의 ‘찌꼬리’ 또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대상물이다.

[오답 피하기]

- ①의 ‘실술(蟋蟀):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화자와 처지가 같다.
- ②의 ‘육룡(六龍): 조선을 창업한 육조(六祖)를 의미한다. 곧 찬양의 대상이다.
- ④의 ‘산(山) 접동새’: 화자의 감정(억울함)이 투영된 대상이다.

17. 답 2

‘어와, 造造化翁翁이 현사토 현사할샤’. ‘어와 너여이고, 너 가타니 또 잇는가’ 등의 영탄 적 표현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산봉우리의 아름다움과 기상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18. 답 2

(가)에서 ‘인적 끊긴 해질 무렵의 가을 산’은 화자의 고독을 더욱 강조하는 장치이지 화자와 자연과의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해질 무렵의 가을 산’과 (나)의 ‘늦은 밤’이라는 설정은 시·공간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장치이다.

④ (가)에서의 ‘울림’은 누군가에게 외쳐본 ‘울림’이다. 화자의 고독에 대한 몸부림으로 보편될 것이다.

19. 답 2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훈’은 지금 누군가에게 미행을 받고 있으면서 상당히 긴장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가장 어울리는 정서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이 옳다.

[오답]만사여의(萬事如意, 일만 만, 일 사, 같을 여, 뜻 의): 모든 일이 뜻하던 것과 같음.

20. 답 3

이 지문은 앞부분에서 한국의 김치가 CODEX 승인을 받았으며, 이로써 한국의 김치생산업체들이 일본의 김치생산업체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뒷부분에서는 일본의 업체들이 강력한 마케팅으로 한국산 김치를 견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업체들이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거나, 일본 업체들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은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③번이 답이 된다.